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98(97), 1,2-3, 4, 3, 4-5-6(◎ 2 참조 또는 3)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찬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 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독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마태 28, 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 16-20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450 입당 450	봉헌 주님 믿나이다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79 169 성체 179 169	파견 63 파견 63
----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9주일/전교주일(10월 20일)		연중 제 30주일(10월 27일)		연중 제 31주일(11월 3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김글라라(순희)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정요한(석준)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이바로로(명국)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최분다(수영)	손리디아(정옥)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10월은 전교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본래 전교란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달을 정하고 특별한 주일을 정해놓은 까닭은 보다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복음 선포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그 실천 방향과 결심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몇 분에게 몇 번이나 복음 전파를 시도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은 개신교 신자들은 상대가 귀찮아 할 정도로 복음전파에 적극적이데 반해,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직장 동료나 혹은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단 한 번도 신앙을 권유해 보기는커녕 본인이 신자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사실을 숨기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교리반에 새로 등록하신 분께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천주교 신자인데, 단 한 번도 성당에 같이 가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오기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전파에 소극적인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당부의 말씀이 봉독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는 한마디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이자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매년 두 차례 예비신자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날이 되면 예상보다는 너무 적은 인원만이 교리반에 등록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한 분 한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운 것은 우리가 조금

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더 많은 분들을 성당으로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만약 종교를 갖게 된다면 천주교를 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귀찮다고 회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10, 14)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신앙을 권유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쑥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친구야, 함께 놀자!

어린 시절의 추억들 가운데에는 간혹 잘 보존된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복사단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성당 다니는 것이 신이 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선교의 열정’ (?)이 강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종종 성당에 데리고 가곤 했는데, 이럴 때면 시합 때의 김연아 선수처럼,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보란 듯이 성호를 긋고 오른 무릎을 꿇는 등 과장된 행동도 하곤 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성당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곳인지를 알리고 싶었고, 또 성당에서 함께 놀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포 5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의 해’를 선포하면서, 공의회 of 근본취지를 기억하며 신앙의 참된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고 권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해’의 막바지에 맞이하는 전교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복지기관이나 NGO(비정부민간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의 기쁨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 (「가톨릭교회교리서」 850항)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 당신 복음선포의 출발지인 갈릴래아로 제자들을 부르시어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 19-20)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말씀은 웬지 딱딱한 교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라는 당부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것’은 단순히 삶의 지혜나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 하나의 커다란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가족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은 더욱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야, 함께 놀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당신 얼굴을 제 안에 새겨주소서.

제 영혼과 마음속에 살아야 하는 이는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이 사셔야 합니다.

오직 당신이...

글\_실야 발터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루치아와 사촌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가 양들에게 풀을 주기 위해 목초지로 가다가 성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20세기초에 나타난 성모님의 발현으로 흔히 이를 ‘파티마의 성모’ 라고 부릅니다. 성모님은 어린 목동들에게 속죄와 회개, 목주기도를 자주 바칠 것과 성직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고 ‘구원의 기도’ 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을 보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뜻밖에도 가족들의 멸시와 박해였습니다. 언니들은 루치아가 성모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자 캄캄한 방에 가뒀으며, 심지어 엄마는 빗자루나 장작개비로 루치아를 때리면서 거짓말을 고백하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모님 공경을 열심히 하였던 가족들이 실제로 자신의 딸 앞에 성모님이 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구박하는 ‘박해자’ 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가르침을 퍼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는 목수의 아들이요, 어머니와 형제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마태 13,56 참조)라고 지혜와 능력을 의심하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들고 일어나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루카 4,29) 죽이려 까지 하였으며, 친척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나서기도’ (마르 3,21 참조)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마태 13,57)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조(馬祖) 선사는 709년 사천성에서 태어난 뛰어난 선걸입니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곡식 중에 섞여 있는 겨를 골라내는 키장이었는데, 성불한 다음 고향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의환향한 마조를 성대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때 개울가에 서 있던 노파가 마조를 보더니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신 스님이 오시는가 했더니 겨우 키장이 마씨네 꼬마 녀석 아닌가.” 이에 마조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남깁니다.

“권하건대 그대여 고향에 가지 마오 / 고향에서는 도를 이룰 수 없네 / 개울가의 늙은 저 할머니는 / 아직도 내 옛 이름을 부르는구나.” (勸君莫還鄉 還鄉道不成 溪邊老婆子 喚我舊時名) “

루치아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때린 어머니가 공경하는 성모님은 현존이 아닌 환상 속의 우상이며, 마조 선사를 비롯한 노파 역시 부처를 깊은 산 법당 속에서만 찾았습니다.

예수를 미쳤다고 붙들러 다닌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킵니다.” (마태 27,25)하고 맹세한 유대인들은 2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가 아닌 제2의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재가중(佛在家中)’ 이란 말이 전해져 옵니다. 당나라 때 양보(楊補)라는 사람이 사천에 유명한 무제(無際)보살이 있다 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양보는 ‘어디를 가오’ 하고 묻는 노인에게 ‘무제보살을 스승 삼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보살을 찾아가느니 부처를 찾으러 가지 그래’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가 어디에 있는 데요’ 하고 양보가 묻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면 이불을 두르고 신발도 거꾸로 신은 채 나서 맞아주는 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부처시네.”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자 이불을 두른 채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나오는 어머니 모습에서 비로소 양보는 ‘집안에 있는 부처’ 를 견성(見性)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눈이 멀어 있는 저’ 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에 흙을 개어 발라주소서.(요한 9,6 참조)

그리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를 허락해 주소서. 아이들 속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케 하시고, 아내의 눈빛에서 성모님을 느끼게 하시며,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의 형제 하나’ (마태 25,40 참조)에게서 주님의 고통을 직시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

고 최인호 베드로/작가

머무름

정치인은  
생명에 대한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하며  
특히  
가정과 모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정 정책이  
모든 사회 정책의 기초이자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0항

## 신앙의 해 전대사(오클랜드 교구)

\* 오클랜드 교구에서는 신앙의 해를 맞이해 특별히 다음의 4가지 중 하나를 통하여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catholicvoiceoakland.org/2013/03-04/inthisissue19.htm>) 참조

1.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들에 참여하여 강론을 적어도 세 번 이상 듣거나, 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했을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지난 2012년 대림피정, 신앙의 해 특강1(세계 교회사), 2013년 사순피정, 신앙의 해 특강2(신앙과 성가), 조 마오로 수녀님 특강(10월 6일) 중에서 세 가지를 들으신 분들과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는 본당 신부님의 '가톨릭 교리서 강의' 에 세 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클랜드 교구에서 지정한 성당(아래 참조)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잠깐 동안 머물러 기도와 신심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고백,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이나 수호성인들에 대한 화살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지정 성당을 방문하셔서 주어진 기도와 묵상을 하시거나 미사 참례를 하시면 됩니다.

- Cathedral of Christ the Light(2121 Harrison St., Oakland)
- Mission San Jose(43148 Mission Blvd., Fremont)
- St. Joseph Basilica(1109 Chestnut St., Alameda)
- St. Francis of Assisi(860 Oak Grove Rd. Concord)

\* 본당 신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로 주교좌 성당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27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10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까지 도착하여 2시까지 묵상과 기도시간
-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까지 도착하여, 미사 참례

3. 세례성사를 받은 곳을 경건하게 방문하여 세례서약을 승인된 양식으로 갱신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전례부에 문의하여 세례서약 양식을 받으신 후 갱신하시면 됩니다.

4. 신앙의 해 마지막 날(11월 24일) 오클랜드 주교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에 참례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먼저 화해성사(고해성사)를 보시고 영성체를 한 후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 2013년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절망하는 사람들(삶의 고통에 짓눌려 절망하는 이들이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전교 주일(전교 주일을 지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선포하는 사람임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2	214	43	349
헌 금	\$544	\$1,602	\$53	\$2,199

< 교무금 > \$3,120

이미영(7-10) 정경희(8-10) 조관식(8-9) 서춘애(10)  
 김상실(11-12) 이영기(9-10) 송분학(10-11)  
 염명련(10) 석홍기(10) 이병열(10) 김찬곤(6-12)  
 김영길(9-10) 강신호(9) 정진희(10) 최재준(7-9)

< 성소후원금 > \$90

정진희(10) 서춘애(12) 송분학(10-11)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익명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날짜	지 향	봉 헌 자
10월20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원마리아(순) 기일	윤사비나
	연 최복동	원프란치스코(광희)
	연 양베드로(봉남)	임루시아
	연 김세실리아(순례)	박헬레나
	생 성우술라	전례성가대
	생 김도미니코(원조)	전례성가대
	생 조스테파노	전례성가대
	생 전안드레아/데레사	전스텔라
	생 성루카	임루시아
	생 흥제이미	정분다
	생 정하상바오로	정분다
	생 김유릿다(정희)	박헬레나
	생 김유릿다(정희)	익명
	생 서데레사	김점마
	생 강마리안나(혜경)	김안토니오(휘)
10월22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0월25일 금	연 권요한/서아가다	김카타리나

~~~~ 오늘 간식은 전덕천 안드레아/엄성섭 시몬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항 -

◆ 앞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11월 위령성월 묘지미사 안내

일시 : 11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 Gate of Heaven

\* 아침미사 있습니다.(성모신심미사)

◆ 2차 헌금 안내

10월 20일(오늘) : World Mission Sunday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평협회의 : 10월 2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요셉회 : 10월 20일(오늘)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 뜨개질사랑회 : 10월 2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사목회의 : 10월 2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ME 모임 : 10월 2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빈첸시오 131차 홀리스 저녁봉사

일시 : 매주 넷째주 목요일(10월 24일) 오후 4시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신앙의 해 신앙상 후보자 추천

- \* 수상 내역 : 미사참례와 신심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며, 기도 및 성사생활에 열심하여 신앙적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한 포상
- \* 후보 추천 : 연말에 올해의 교우상(전교상, 봉사상, 사랑상) 시상이 따로 있으니, 위의 수상 내역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상일 : 11월 24일 신앙의 해 폐막미사 중
- \* 접수 : 11월 1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 \*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 메디칼, 오바마 케어 설명회

일시 : 11월 3일 8시 미사 후, 교중미사 후 성당

| 10월 구역모임 콜로세서 3-4장 |              |                       |
|--------------------|--------------|-----------------------|
| 4 구역               | 10월26일(토)6시반 | 최환준 베네딕토 덕            |
| 5 구역               | 10월27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7-2구역              | 10월26일(토) 6시 | 친교실                   |
| 8-1구역              | 10월27일(일) 5시 | 박일신 바실리오 덕            |
| 8-2구역              | 10월20일(일) 6시 | UC Village Cross Rd.# |
| 9 구역               | 10월26일(토) 6시 | 김영준 사비노 덕             |
| 10 구역              | 10월26일(토) 6시 | 윤성진 루카 덕              |

◆ 신앙의 해 전대사에 관한 내용이 후보 5쪽에 실려 있습니다.

\* 본당 신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로 주교좌 성당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7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10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까지 도착하여 2시까지 묵상과 기도시간
-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까지 도착하여, 미사 참례

◆ 다음주 27일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레이더스 홈경기 가 있습니다. 880보다는 580을 이용하시는 것이 미사시간에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월 Hair Cut 봉사는 첫째, 셋째 주입니다.

◆ 다음주 10월 27일은 본당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8시미사, 교중미사 후 전신자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                            |
|----------------------------|
| <b>주일학교 소식</b>             |
|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